

철학사

60 헤겔 이후의 관념론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제가 드린 개요는 지리적인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니 필요에 따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칠판에 적어둔 세 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인데요, 슈툼프(Stumpf)에 쇼펜하우어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예전 판에는 없었는데, 이번 슈툼프 개정판에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너의 책에는 쇼펜하우어의 발췌문이 몇 개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이상주의는 미국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페이지 하단의 '미국에서의 개인적 이상주의'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칸트주의 운동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외에도 영국의 FH 브래들리가 있는데, 그는 20세기 초 신헤겔주의 철학자의 한 예입니다. 실제로 화이트헤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헤겔주의자죠. 아마 금요일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칸트 이후 사상에 대한 논의 초반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관념주의 운동은 자신의 인간 정신, 의식, 자각 정신을 렌즈나 거울에 비춰본 것을 현실 전체에 투영하려는 시도입니다. 헤겔의 사상에서 자기의식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절대 정신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모든 사상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 놓았듯이, 쇼펜하우어는 의지주의적 이상주의자입니다. 즉, 그가 가장 잘 드러내는 자아의 측면, 다시 말해 현실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겔이 "이성적인 것이 실재이고 실재가 이성적이다"라고, 다시 말해 자신의 의식적 변증법을 통해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실재이고 실재가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 의 의지라는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목록 맨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참고 문헌을 살펴보면, Ewing의 저서는 20세기까지의 이상주의 전통에 대한 역사적 개요와 관련 문헌 및 해설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상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 1850년부터 20세기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CCJ Webb의 책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및 정치 사상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 AJM 밀른을 알아보세요. 곰돌이 푸의 작가 밀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군가 얼굴을 찌푸렸네요. 곰돌이 푸 들어보셨어요? 제 말은, 닥터 수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는 거죠. (닥터 수스를 기억하신다면요.)

하지만 그 책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밀른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것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먼저 길 건너편에 있는 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해 몇 마디 하고 다시 쇼펜하우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랑스에는 멘데비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경우에는 의지나 사고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나는 느끼므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실재하고, 실재는 감정이다. 그런 낭만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 모리스 블론델은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는 낭만주의 철학자 셸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기독교 철학자였지만, 당대의 철학적, 사회적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에서는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블론델은 그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독교 철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가 낭만적으로 미화했던 이상주의를 기독교 철학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앞서 무솔리니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조반니 젠틀레를 파시즘의 정치 사상가이자 정치 이론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베네데토 크로체도 미학과 미학 이론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겔적 미학관을 원한다면 크로체가 헤겔 본인보다 조금 더 읽기 쉬운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FH 브래들리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AE 테일러는 흥미로운 작가이며, 글도 매우 읽기 쉽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는 『형이상학의 원론』이라는 형이상학 교과서를 썼는데, 이는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헤겔주의 전통 속에서 헤겔 관념론자가 어떻게 형이상학을 다룰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플라톤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플라톤 저서에서 플라톤을 훌륭한 성공회 신자로 묘사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유신론자였으며, 《도덕주의자의 신앙》이라는 또 다른 책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옥스퍼드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이후에는 성공회 고위 성직자가 되어 1940년대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 윤리학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저서는 《자연, 인간, 그리고 신》입니다.

그걸 보면 그가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 인간, 그리고 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그게 그의 요점입니다.

그건 형이상학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브레히트의 창조적 정신』이라는 또 다른 저서도 썼는데, 거기서 그는 플라톤의 선, 진리,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가져와 그것들이 하나, 즉 신, 절대자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브래들리는 절대자를 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절대자의 가장 높은 현현이지만, 절대자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범신론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조너선 에드워즈와 초월주의에서 초기 형태의 이상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머슨을 중심으로 한 미국 초월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 낭만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광범위 하게 확산된 영국의 헤겔주의 운동은 하버드 철학과의 황금기에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조시아 로이스가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또 다른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시아 로이스, 윌리엄 제임스, 조지 샌디아나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죠. 로이스는 헤겔의 현실관을 미국 사회에 적용하여 절대 정신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로이스의 공동체관, 즉 미국적인 개념에서 헤겔의 정치 사상과 국가 개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든 파커(Borden Parker)로 대표되는 미국의 개인적 이상주의도 나타납니다. (BP, Borden Parker Bowne으로 쓰는 게 맞겠네요.)

덧붙여 말하자면, 남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수년간 개인적 이상주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철학관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든 파커 보운 철학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 이상주의의 주요 중심지는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보스턴 대학교였습니다.

에드거 셰필드 브라이트먼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의 학생들 중에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1950년대 무렵 복음주의 사상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브라이트먼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 과정을 밟았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 풀러 신학대학원의 신학자이자 종교철학자였던 에드워드 카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개인적 이상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독교 사상가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 이상주의는 현재의 강력한 현실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담아 그것을 언급하곤 합니다. 개인적 이상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보운-브라이트먼-바토치 학파의 이상주의는 헤겔 운동처럼 일원론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다원론적 이상주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헤겔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브라이트먼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를 가장 잘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한 책은 브라이트먼의 저서 『인격과 실재』입니다. 『인격과 실재』라는 제목이 흥미로운데, F. H. 브래들리의 대표작은 『외관과 실재』였고, 화이트헤드의 대표작은 『과정과 실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현실을 규정하려고 애쓰는 거죠. 브래들리는 걸모습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설명하는데, 그는 걸모습은 어느 정도까지만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걸모습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현상적인 수치적 격차를 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헤겔 변증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모든 단계에도 현실의 정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관과 실재』라는 제목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라는 제목처럼 그러한 점을 반영합니다. 신 역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과정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사용하는 근본적인 모델은 감각 지각, 감각 의식이라는 과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먼이 『인격과 실재』를 쓸 때, 그는 인격이라는 개념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인격적인 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윈론자의 관점에서 이는 신과 다른 인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와 베르토 치는 악의 문제에 대해 유신론적 유한 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전적으로 선하다, 신은 전적으로 전능하다, 신은 전적으로 지혜롭다, 그리고 목적 없는 악이 존재한다는 네 가지 명제 사이의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제시한다면, 모순이 발생한다면 네 가지 명제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만은 신이 절대적인 전능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제한된 전능함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이 악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원론적 관념론을 믿는다면 악은 당연히 전체의 일부입니다. 범신론이라면 악은 신성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선의 그림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악은 아닙니다. 플로티누스의 발산설과 그의 일원론적 관념론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기억하시죠?

음, 다윈적 이상주의를 택하면 악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악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유신론적 접근 방식의 상당 부분이 질서정연한 물리적 창조의 존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는 물리적 창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복통, 충치, 동맥 경화, 아니면 창밖으로 너무 몸을 내밀다가 머리를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절제력이 부족하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잃어버린 일종의 규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악은 질서정연한 우주에서 영혼을 만드는 기능을 하며, 이것이 바로 악이 발전해 온 방식입니다.

당신은 영혼을 만드는 신정론을 기억하시죠. 만약 신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 밖에 물리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의 외부적 원인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버클리식 관점에서 보면, 고통에 대한 당신의 수동적인 생각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악의 문제는 결국 신에게로 귀결됩니다. 브라이트만은 신을 악의 원인으로 몰아세우거나 신이 전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매우 열정적이고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었기에, 목적 없는 악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주의 혼란 탓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어떤 요소, 즉 그가 '제3의 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탓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현실에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따라서 신은 유한하다. 음, 이는 곧 악의 문제가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자에게 영원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장보기 목록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쇼펜하우어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톨츠의 쇼펜하우어 관련 장은 매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발췌된 내용들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는 『의지와 표상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자, 제가 이상주의자들은 자아라는 렌즈를 통해 사물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자각하는 두 가지는 의지와 관념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이 렌즈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현실 전체에 투영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의지와 이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와 피히테의 영향을 받아 의지를 강조하는데, 이 두 이상주의자는 모두 물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념, 즉 피히테가 비자아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우리가 가진 이념들을 현상으로, 의지를 누메나, 실재, 현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해한다.

근본적인 실체는 의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까요? 현상론적인 부분은 쉽습니다. 여러분은 칸트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현상론적인 부분은 아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요점은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마음에는 자연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관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념들을 선형적인 범주로 질서화합니다. 다시 말해, 칸트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선형적 범주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원이라고 말하는 범주들. 다시 말해, 그는 네 가지 범주 집합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범주 집합.

하지만 동일성 측면에서 칸트의 범주와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제시합니다. 근거와 결과.

원인과 결과. 공간과 시간. 동기와 행동.

자, 주목하세요.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범주들입니다. 칸트의 범주들처럼 뉴턴적인 범주는 아닙니다. 칸트가 '근거'와 '결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것의 논리적 근거와 그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결론. 공리와 추론. 그는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 사고의 세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다. 칸트도 그렇게 말했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범주들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게 세상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 대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죠.

물리적 사건들. 논리적 필연성보다는 인과적 필연성. 칸트가 그의 초월적 미학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공간과 시간은 수학적 대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 필연성뿐만 아니라 인과적 필연성, 수학적 필연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동기와 행동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아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아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의 관념 세계는 논리적 필연성, 인과적 필연성, 수학적 필연성, 그리고 도덕적 필연성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필연성은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필연성의 반대,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필연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세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뉴턴의 주장은 상반됩니다. 세계는 의지의 본질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턴은 어떻게 그것을 전개할까요? 그는 세계가 바로 자신의 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vorstellung*, 나의 표현. 내가 세상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방식. 세상은 나의 생각이다.

'포르스텔룽(Vorstellung)'은 헤겔이 종교에서 상징적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며, 수학 또한 상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논리는 상징적인 언어 표현 방식입니다. 동기와 행위에 대한 윤리학 또한 상징적인 언어 표현 방식입니다. 이는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갖는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내 의지가 투영한 세상이지. 내가 세상에 내 의지를 강요하고, 내 사고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충분 이유의 네 가지 경로입니다. 여기서 그가 '충분 이유'라고 말할 때, 이는 라이프니츠의 '충분 이유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질서정연한 모나드 배열 안의 모든 것은 충분한 이유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충분한 이유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분 이유의 법칙은 인과 원리, 즉 필연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가장 좋은 세계는 결국 유일하게 가능한 세계였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러한 충분조건은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개념이자 구조일 뿐이다. 그것은 내 의지의 투영이다.

자,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자아가 근본적으로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추진력 있고, 의지적인 존재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 흥미로운 방식 중 하나는 후대의 실존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그는 인간의 사고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내가 신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그의 현상학은 오늘날 '살아있는 몸'으로 알려지게 된 현상학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몸은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 '살아있는 몸'이란 당신의 의식적인 신체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존재에 대한 자각. 살아있는 육체적 경험. 물리적 움직임으로 측정되는 객관적인 시간과 살아있는 시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거나, 빠르게 흘러가거나,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실존적 특성은 명백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 역시 이러한 살아있는 신체적 경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92페이지와 그 이후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는 이 개념을 소개합니다. 92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제18장. 내가 찾고 있는 세상의 의미는 그저 내 모습 그대로 내 앞에서 있다. 탐구자가 그저 순전히 아는 주체, 몸 없는 날개 달린 아기 천사에 불과하다면 결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세상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육체와 그 육체의 감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을 이해 하고 인식하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

칸트에게 있어 이해의 출발점은 경험적 입력, 즉 감각적 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살아있는 신체의 현실을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93번을 보세요.

아니, 취소해. 92번, 페이지 중간쯤에 있어. 앎의 주체, 아는 주체, 바로 나, 나는 몸과의 동일시를 통해서만 개인으로 나타난다.

맞아요. 육체와의 동일시를 통해서만 개인이 드러나는 존재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외형이에요.

이 몸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다. 하나는 표상으로서 지적인 지각을 부여받는 방식이고, 다른 사물들 사이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다른 사물들의 법칙을 따르는 존재로 주어진다. 필연적인 이유, 충분한 이유.

하지만 의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는데, 바로 누구나 즉시 알 수 있는 '의지' 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진정한 의지 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수반합니다. 사람은 의지를 품 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93쪽의 맨 위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지는 신체에 대한 선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서 그는 나의 의지에서 의지 자체로 나아갑니다 .

페이지 하단에서 약 12줄 정도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의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이유의 원칙의 모든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현상은 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원성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 현상은 무수히 많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이지만,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인 것은 아니다. 대상의 통일성은 가능한 다원성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의지는 개념으로서의 의지와는 다릅니다. 개념은 추상 에서 비롯됩니다 . 의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떤 개별화 원리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의 개념 으로서 만 하나입니다 .

다시 말해, 다원성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 나의 개별적 정체성이 의지, 즉 나 자신의 의지를 가진 존재, 나의 관념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나의 의지라면, 많은 의지가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의 통일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실재는 바로 그 통일된 의지, 절대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헤겔의 절대정신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절대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개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물 그 자체는 의지의 본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지는 충동과 창조적 폭발을 통해 맹목적으로 드러냅니다. 낭만주의가 느껴지시나요 ? 그런데 이것이 쇼펜하우어에게 온갖 비관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실의 핵심에는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끝없는 노력에서 벗어나면 남는 것은 권태와 고통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만족되지 않은 욕망, 이루어지지 않은 의지, 아니면 권태와 고통만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후기 비관주의의 근본입니다 . 미적 경험, 즉 사색적이고 재현적인 경험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하나의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얻고, 자신의 욕망이 아닌 절대 의지의 의지와 자신의 의지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대안은 의지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금욕주의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내 의지의 투영이라면, 내가 의지를 억누르면 세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無)의 상태가 그 결과이다.

하르트만의 저서 122쪽부터 126쪽까지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드너의 책에서 하르트만을 언급했나요? 쇼펜하우어에게는 에드워드 폰 하르트만이라는 추종자가 있었는데, 그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에 동의하며 의지의 최종 행위는 당연히 자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최악의 세계라면 자살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헬레니즘 시대 초기의 키레네 학파 쾌락주의자들의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를 읽어보셨다면, 그가 자살의 윤리를 논하는 이유가 바로 쇼펜하우어-하르트만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변증법이 최악의 세계에서 종합을 허용하지 않은 채 끝나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질문이며, 실존주의자들이 답을 찾으려 애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실존주의자들이야말로 그 종합을 제시한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초과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읽어라.